

핵심 증인 불출석·증언 거부... 내란 국조특위 '맹탕'



김성열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차 청문회 윤 대통령·김용현 불참... 이상민 행안장관 '묵묵부답' 野 "지난해 사이버 경찰 TF 운영...국민 대상 심리전 모의 의혹"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수사·특검 부당"과 "심리전 모의 의혹" 등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22일 국회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가 부당하고, 구속 수사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반면, 야당은 계엄 관련 모의에 사이버 심리전도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조태웅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자리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청문회장에 나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청문회에 자리했지만 의원들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김성훈 경호차장을 향해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위법적인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처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거고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느냐"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여당은 아울러 야당이 계엄사태에 앞서 군이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계획한 의혹을 '외환유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군사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서 '외환유치'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수정안을 보면 '인지된 관련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며 "외환유치를 몰아서 우리 군의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은 작년 9월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에서 군 사이버작전 사령관에게 '공세적인 활동'을 강조했고, 이후 사이버사령관이 정에 사이버 요원 28명으로 '사이버 경찰 TF'를 운영했다"며 "사이버사가 국정원 등과 연계해 전 국민 대상 심리전을 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작년 12월 6일 저녁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로 검찰 출석을 회유했는데, 이때 김 전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 후에 말하겠다'고 답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제보에 따르면 이때 윤석열은 김 전 장관에게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고 답변했다고 한다"며 "김 전 장관의 8일 새벽 '셀프 출석'의 배후에는 윤 대통령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추경 검토 안해"...민주 "대단히 실망"

정책위의장 회동...민생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등 논의

여야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민생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지난해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래 먹거리 4법'에 대해 "해상풍력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3법은 아마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논의

로 봐야 할 것 같다"면서 "민주당에서 정책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결과를 좀 보고 상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당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처리에 대해선 "거론됐지만 합의가 안 된 것"이라며 "이견 차이가 큰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엇갈린 입장을 확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진 정책위의장은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박광은 전 의원, 오늘 정책연구소 창립 기념 심포지엄

박광은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든 정책연구소 '일곱번째나라LAB'이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

22일 일곱번째나라LAB에 따르면 박 전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중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 기자회견에서 '탄핵 넘어 다시 만날 민주주의'

를 주제로 정치 토론을 할 예정이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이철희 전 청와대 정부수석, 김진지 시사IN 기자, 배종찬 인사이드케이 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 유치법 상임위 통과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 유치를 위한 박물관 미술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구)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했던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문체위가 이날 원안결정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8일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국비예산 반영)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단계별 체계적 접근 전략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문체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을 맡아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위한 용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안이 증액 없는 감액예산으로 확정되면서, 2025년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부도 동의한 만큼 향후 추경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에 광주관 유치를 위한 예산반영 근거를 담은 법안까지 통과돼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전국 박물관·미술관의 수도권 집중과 호남소외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라면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향후 추경에서 관련 예산확보는 물론,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내란 주요 인물 7명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尹·김용현·노상원 등 포함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특위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자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의결했다.

동행명령장 명단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근 전 대령, 박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이날 동행명령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출석시켰다는 것은 대통령 망신주기 아니냐"며 표결에 반대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